무의도서를 다녀와서

~질병퇴치와 보건계몽을~

<적십자병원 부간호원장> 윤 경 혜

7月 21日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적십자 무의도서 순회 진료단의 결단식을 마친 후 대한 여행사 차에 몸을 실었다.

무의 도서 순회 진료란 대한적십자사 보건부의 주관으로 각 종합 병원의 찬조로서 인류의 3대 고난중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 구제하고자 1962年度에 처음 始作하여 금년으로 6년이란 연륜을 지닌 채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해이다.

특히 의료의 혜택이 적은 낙도민의 질병 퇴치 및 보건 사상의 계몽 등을 위하여서 계획된 것으로 지난 6年間의 사업의 결산이므으로 낙도민의 건강 향상과 위생 관념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금번은 仁川 支社와 忠南 支社의 공동 주관으로 서울 醫大, 연세 의대 수도 육군 병원, 이화 의대, 우석의대, 적십자병원 6個 team이 참가했다.

의사 4名, 간호원 1名, 가정 간호법 강사 1명, 응급 처치법 강사 1名, 행정요원 1명, 보드원 1名, 한팀에 9名씩 도합 54名의 일행이다.

어느 열대지방 못지 않게 쏟아지는 소나기를 헤치며 "만일 아베베였다면 비 사이를 뛰어 맞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우스운 소리를 하면서 仁川에 닿았다.

중앙 여관에 유숙하며 다음날의 먼 항해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우리 병원이 가기로 한 곳은 경기도 강화군 교동면으로 인천서 연락선으로 6시간 가는 곳이다.

이곳의 특산물은 화문석인데 전근대적인 수공업에 의존하는 편이었다.

수학 여행은 어린 학생과도 같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체 22日을 맞이했다.

새벽 4시 적은「보트」를 타고 안개 속에 큰 산과도 같이 우뚝 정박해 있는 해군함에 몸을 맡겼다.

뿌연 안개와 가을을 두색케 하는 바닷 바람은「부라우스」와 엷은「스웨터」를 통원케 했다.

날씨가 흐린 탓인지 해뜨는 장관은 보지도 못한체 멀미는 아랑곳 없다는 듯 잘도 달린다.

등로 의식이 들어서인가 곧 인사를 나누게 되고 오랜 친구인양 스스

러움이 없어지고 이야기의 꽃을 피움은 현대인인 까닭일 것이라는 생각이 돌었다.

군인 아저씨가 만드는 밥과 국을 들으면서 여성다움을 벗어난 약간 중성과도 같은 마음이 들어 어떤 바지씨엔가 미안한 감이 들었다.

군인 아저씨가 만든 것만도 못한 밥을 들게 해 줄 걱정이 문득 들었지만 사람이란 적응 능력이 있다고 합리화시키며 바다 위의 식사를 돌었다.

각도로 표시되는 방향을 돌으며 해저의 깊이가 색의 농담으로 표시된 해도를 보고 찾아가는 모습은 전문 교육의 필요성을 수긍케 해 주었고 이렇듯 우리 국군 아저씨가 건재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 든든해 하였다.

9시간의 항해 끝에 적은 LCM에 경기도 지역의 우석, 이대, 적십자 3개 팀이 옮겨 타고 푸른 바다에 하얀 가름아를 타며 주문도에 우석의대, 교동도에 적십자 병원 팀을 내려놓고 적은배는 이대 team을 태운 채 우타를 시야서 사라져 버렸다.

흔드는 손에서 이별의 아쉬움과 재회의 희망을 담은채 이제부터란 긴장감이 전신을 엄습해 왔다.

오후 6시반 근 14시간의 항해를 한 셈이다.

멀리 보이는 수평선과 집으로 찾아가는 아낙네들의 부지런한 걸음도 외면한 채 곧 출발이란다.

3Km 정도 들어간 곳이 우리들의 숙소이다.

동차를 대절했으니 짐을 놓고 가라는 그 곳 아저씨 말대로 걸으면서도 무엇이 동차인가 살피느라고 고개가 아플 지경이다.

기대완 영 달리 우마차가 동차란다. 섬에서의 주요한 교통 수단이 되는 동차는 소 고삐 매는 방식이 육지와 다르다.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을 것 같은 푸르고 너른 들.

섬주위는 전부 산으로 둘러 싸여 있다.

물위에 둥둥 떠있는 섬이야말로 피서에 적합할 것 같이 보였다.

23日 진료의 시작이다.

넓은 교실에 임시 진료소를 차리고 큰 책상마다 내과, 외과, 치과, 안과라고 써 붙였다.

바람에 박자를 맞추어 펄럭이는 종이쪽지를 보며 언젠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한 장면만 같았다.

약국과 처치실은 나란히 붙여놓고 1일 약국을 개업했다.

공산 명월이 부러울 것 없는 내과 B 선생님, 어느 희극의 한 씬에 출연했었던 것 같은 섬 아이들 사이에 허장강 4촌으로 소문이 난 치과 C 선생님, 웃으면 한쪽 입 끝이 한껏 위로 당겨지시는 안과 K선생님, 면도를 않고 집에 가시겠다는 「카스트

로 못지 않은 털보 외과 Y선생님.

이마에 땀 닦을 사이도 없고 담배를 피워 물 사이도 없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는 듯이 서 있는 환자들.

오랜 병고에 찌들은 얼굴들.

우리 한 민족은 무척 공차를 좋아하나보다.

한 가족이 다 나타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각과마다 적당히 배치하는 머리에 완전히 두손을 위로 올렸다는 응급처치법 강사 B선생, 힘 들이지 않고 만사를 처리해가시는 C선생, 병원에 가서 방학동안 약국서 일하겠다는 O양, 너무나 열심들이다.

22日부터 25日까지의 4일간 연인원 750명을 진료했고 예방 접종자 700명, (장티브스) 저녁엔 응급 처치법 강의와 가정 간호법 강의, 구호물 전달, 도서 비치등 다채로운 순서가 진행되었다.

환자中 23%에 해당하는 173名이 내과 환자. 그中에서 국민의 持病인 위장 계통이 그의 63%를 점하고 있다.

바닷가인 때문인가 만성 중이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피부병, 안과 질환도 꽤 눈에 띄었다.

정형외과 중에는 골수성 관절염이 많이 왔고 외과에 60名, 안과에 64名, 이비인후과 96名, 피부과 65名, 치과 130名 그외에 신경과, 부인과 등 많은 환자가 있었다.

이 교등도가 강화군중 가장 가족계획이 안된 곳이라고 가족 계획 요원이 말하지만 1세대당 5~7인에 해당하므로 그 정도면 가족계획이 어느정도 되어 있다고도 말 할 수 있지 아니할까 생각했다.

이곳엔 공의가 1名, 조수가 1名이 있었고 간호원이나 조산원도 없었다.

보건 진료소를 신축하고 있었고 우물의 물은 그냥 먹을 수 없었다.

꼭 끓여서 먹었고 익힌 음식만을 먹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배탈들이 나서 번갈아 변소의 문을 두드렸다.

변소는 헛간과 겸용으로 하여 아궁이재를 옆에 쌓아 놓아서 물이 들어가 질퍽한게 오기나 하루살이의 번식처로 호조건이라 볼 수 있었다.

이곳의 생업은 주로 농업이고 1年間의 수확으로 3년간을 먹고 살 수 있다는 섬같지 않은 부유한 섬이다.

섬에는 대개 인심이 나쁜 법이라지만 이 섬은 유순한 황해도와 가까운 까닭인가 인심이 몹시 후하고 우릴 대하는 얼굴마다 미소가 번진다.

작년에 경남 욕지도에 갔을 때와 같은 골수염이 외부로 루공이 생겨 고름이 흐르는 곳에 대변을 바르고 광목으로 싸맨 것 같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난 6년간의 우리들의 땀과 노력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자부한다.